

‘尹 방탄’ 국민의힘, 국민은 안중에 없나

체포영장 집행 막고 현재 흔들기
‘내란 혐의’ 국정조사도 어깃장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 시켜
도 넓은 윤석열 지키기에 ‘분통’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탄’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4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4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한 것도 모자라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에서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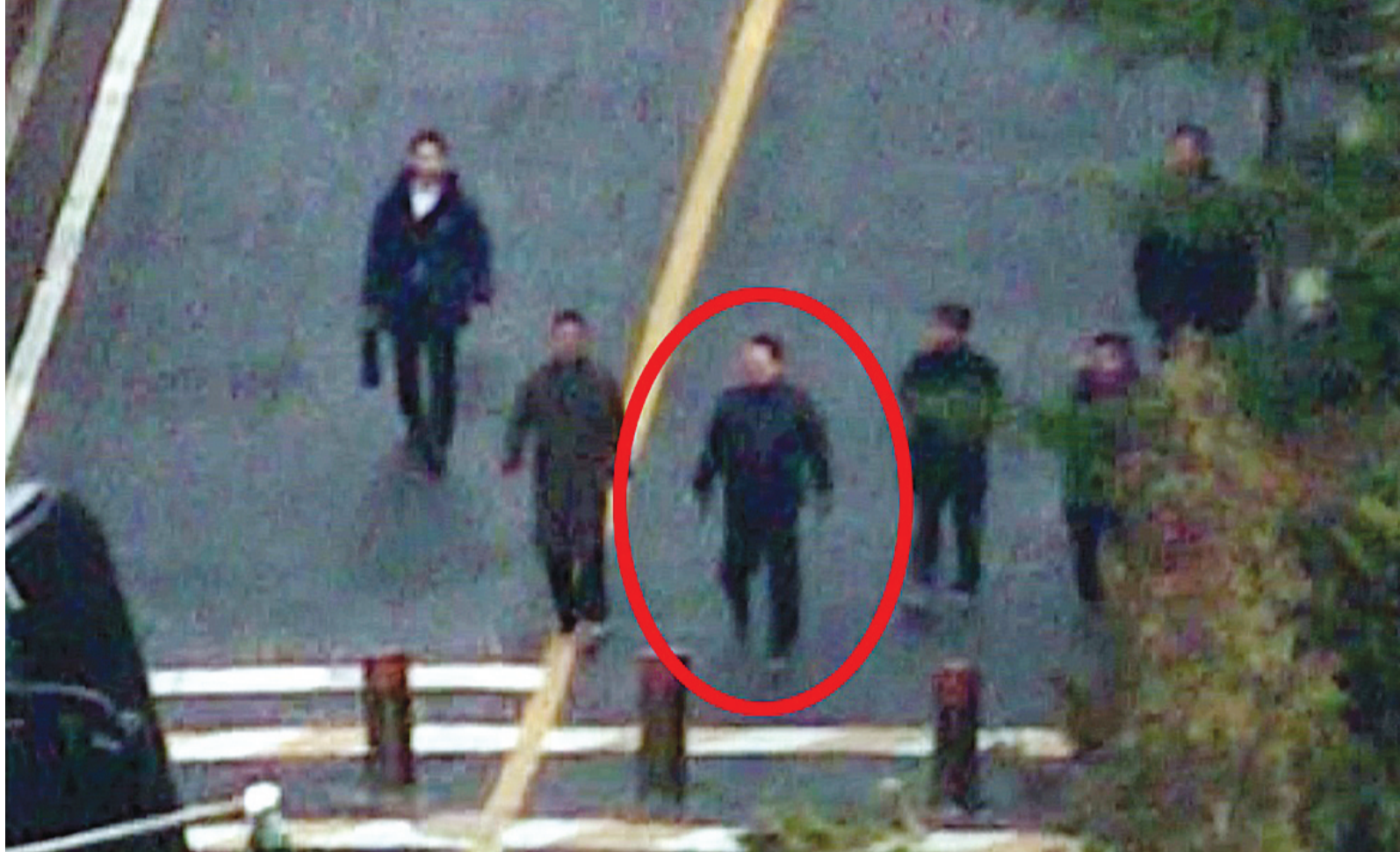
여기에 “현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연일 흔들고 있는 데다, 그나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에서 부결시키면서 ‘尹 방탄’을 위한 여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중언감정법 등 8개 법안이 8일 국회 대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이뤄진 이날 대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대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 표가 필요한 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분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



8일 낮 12시 50분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 원 안)이 포착됐다. 그는 관저를 지키고 있는 요원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7분여 동안 머물다 자취를 감췄다. (오마이뉴스 TV 제공)

회로 돌아왔다. 이에 야당 주도로 다시 상정됐고, 이날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분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대표결이 다시 부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탄핵의

마지막 보루인 ‘현재’까지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특검까지 부결시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해와 탄핵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8개 법안 중 내란 특검법만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분회의에서 가결돼 공식 활동에 돌입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특위 명칭,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내란’인지 ‘내란 의혹’인지 명칭에 대한 여야 갈등 끝에 ‘내란 혐의’로 명칭을 합의했지만 다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면서 명칭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2·3 내란’ 후 주식 거래 크게 줄었다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대금 15% 감소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탄핵 등으로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주식 거래가 감소했으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5조1747억원으로 전월(6조 783억원) 대비 9036억원(14.9%) 감소했다.

지난달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5032억원으

로 전월(1조 8234억원)보다 3023억원(17.6%) 줄었다. 매도거래대금은 1조7873억원에서 1조5176억원으로 2697억원(15.1%) 감소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1조782억원으로 전월(1조2321억원)에 견줘 1538억원(12.5%), 매도 거래대금은 1조2355억원에서 1조756억원으로 1599억원(12.9%) 줄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꼽혔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9일 기준

2360.58포인트(p)로 연저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미 연준(FED)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또다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통해 원화 약세폭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399.49까지 회복세를 보이기 했지만 여전히 국내 정세 및 증시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수거래대금과 매도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69%로 전월 대비 각각 0.02%p, 0.01%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7일 임시공휴일 설 명절 6일 연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올해 설 연휴는 최대 셋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계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 서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에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주항공 수습 소방대원들 트라우마 호소 ▶6면



팔도 핫플레이스 - 장수 뜰봉생 생태공원 ▶22면

광주일보 창간 73주년

광주일보 창간 73주년을 상징하는 엠블럼. 더 넓은 세상과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번개와 지구본 형태는 세계 곳곳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광주일보의 비전을 상징한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 분기형
광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8주간 이중맹검·무작위·대조군 비교 임상시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